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에필로그)		
에필로그 2			
<p>3월의 막바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풍경을 보여주었다. 굳이 다른 것을 꼽자면, 보석 용단을 펼친 밤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과 뿌연 미세먼지?</p> <p>이준은 완전한 봄기운이 제 머리칼을 간질일 때마다 그날을 떠올리곤 했다.</p> <p>‘저고리와 치마가 참 잘 어울렸지.’</p> <p>이준은 해마다 봄이 오면 동학군과 부대끼던 그 날이 떠오를 것만 같았다. 계절이 흘러도 무감하던 현대의 이준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였다.</p> <p>그때, 무음으로 해놓은 휴대폰에 뜬 이름 세 글자가 이준의 시선을 빼앗았다.</p> <p>"어, 상현아."</p> <p>-형, 어디예요? 밥은요?</p> <p>"먹었어. 왜?"</p> <p>-그냥요. 궁금해서요.</p> <p>늘 이런 식이었다. 상현은 제가 엄마라도 되는 양 시답잖은 안부를 하루에 수회씩 물어왔다. 그럼에도 이준은 딱히 귀찮다거나 성가심을 느끼지 않았다.</p> <p>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았다.</p> <p>복직하기 전까지 주어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던 이준은 전라도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그때와는 얼마나 다르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p> <p>이준은 처음 깨어났던 고부면부터 시작해서 부안에 있는 백산성지, 정읍에 있는 황토현 전적지와 장성의 황룡촌 전적지를 차례대로 돌아보았다. 농민군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봉기를 일으킨 지역마다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다.</p> <p>"봉 형이 여길 봤으면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p> <p>아마 또 저녁노을 같은 미소를 지으며 구수한 사투리를 뱉었을 테지. 봉준은 분명</p>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이준은 맞은편 공원에 소풍 나온 어린아이들을 지나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현종의 나이가 딱 저맘때였지, 싶어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간 것 같았다.

동학군의 발자취가 묻어나는 이곳 전라도는 모든 게 다 새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때의 현세와 지금의 이준이 같은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준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장이었다.

까맣게 그을려진 집터가 뇌리를 스쳤지만, 고창군에 위치한 지금의 무장은 무척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즈넉한 풍경이었다.

이준은 잘 꾸며진 무장읍성을 걸으며 당시의 일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기억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아무리 강렬했던 사건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모양이었다.

각종 건물터와 터전들이 잘 유지 된 것을 보자, 이준의 잇새로 탄식이 흘렀다.

“그대로인 것들도 있네.”

성터를 두르고 있는 돌들의 크기는 이전과 변함없이 올망졸망해보였다. 너르지도 않은 이런 곳에서 수천 명이 봉기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틀린 말도 아니었다.

무장읍성을 빠져나온 이준은 고창 좌치 나루터로 향했다. 하얀 빛 가루를 입혀놓은 듯 반짝이는 물살이 펍 보기 좋았다. 나루터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배 한척이 외로이 떠있었다.

누군가 올라탄 것도 아닌데 배는 유유한 물살에 몸을 실은 채로 평온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이준은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히 읊조렸다.

“그래. 오랜만이야.”

이준은 줄곧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반지를 꺼냈다. 오래도록 간직해서 그런지 반지는 따스한 체온을 머금고 있었다. 저 푸른 물빛을 닮은 동그란 반지가 강물처럼 반짝거렸다.

이준은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폼다. 그리고 물기를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반지는 화답이라도 건네듯 영롱한 빛을 반사했다. 이준은 한참동안 멍하니 반지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부드러운 물살 한가운데 던졌다.

“...이젠 편히 잠들렴, 내 동생.”

퐁! 소리와 함께 현종의 유골 반지가 강물 속으로 잠겨들었다. 이준은 코끝을 씩씩, 문지르며 뒤를 돌았다.

이준은 이제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그날 동학관에 비치던 기척이 무엇이었는지. 저를 애타게 부르던 그 빛깔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나를 구해주기 위해 반짝였던 거구나.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이쪽으로 들어오라던 너의 신호였어.’

일상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모든 게 정상 수치로 돌아온 이준은 전과같이 방탄조끼를 꺼입고 늘 차고 다니던 총기를 챙겼다. 비상상황답게 무전기에서 연신 전파음이 뒤섞인 목소리가 울려댔다.

“여울병원 4층, 방화사건이 발생! 반복한다. 여울병원 4층 방화사건 발생! 아직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다! 전원 현장 출동 바란다!”

이준은 조끼를 조물거리는 상현을 잡아 세우고 달각! 소리가 나게 버튼을 채워주었다. 박물관 테러 이후, 녀석은 무전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경이 느려지는 버릇이 생긴 듯했다.

“정신 챙겨, 인마.”

“네, 팀장님.”

어엿한 팀장자리에 오른 이준은 초록색 건장을 덧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상황은 듣던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가득 메워진 병원 앞은 매캐한 연기와 인파로 복적이고 있었다.

“상황은?”

“방화범이 인질을 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지체했다가는 질식사 할 지도 모릅니다!”

이준은 현장에 나온 소방 책임자와 급히 합의점을 찾았다. 일단 소방에서 침투로를 확보해주면 그다음은 특공대가 투입하기로 했다. 인질범을 자극해봐야 하등 좋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빨리 움직이자!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너희는 외벽 쪽을 주시해!”

“예!”

상황은 급박했지만 모든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에 침투할 틈이 생겼다.

“지금입니다!”

상현의 신호와 동시에 이준을 비롯한 침투조는 날렵한 속도로 목표지점에 안착했다. 4층 내부는 자욱한 연기로 뒤덮여 바로 앞사람의 형태만 분간이 갈 정도였다. 불어치는 긴장감속 착용중인 산소마스크에서 거친 숨소리가 닿았다, 되돌아왔다. 이윽고 문제의 장소인 흉부외과 쪽에서 발길이 멈추었다. 아직 불이 여기까지는 번지지 않았지만 산소로 호흡해야 하는 인간이 버티기에는 모자란 시간이었다. 예상대로 문고리는 단단히 시정되어 있었다.

“인기척이 없는 걸로 봐서 실신상태일지도 모른다. 바깥 상황은?”

잠시 후, 드론을 띄워서 파악한 내부사정이 이준의 귀에 박힌 무전장치로 송출되었다.

「전부 쓰러졌다. 인질범 미동 없음! 인질범 미동 없음!」

이준은 망설임 틈도 없이 총기를 꺼내 문손잡이를 쫓다. 낫가를 때리는 굉음에도 그는 지체없이 문을 밀어재겼다.

흉부외과 사무실 바닥에는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 셋과 인질범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모로 누워있었다.

이준은 차분하게 내부를 훑으며 무전을 쳤다.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해. 피해자는 전부 셋. 인질범 하나.”

이준은 병원 창문을 깨다시피 열고 피해자들의 의식을 확인했다. 다들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희미한 생체반응을 보였다.

그때, 재빠르게 들이닥친 소방대원들에 의해 피해자와 인질범이 차례대로 실려 나갔다.

“빨리! 구급대원들 바로 밑에 대기시켜! 조심해서 들어올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던 이준은 붉은 리본이 하늘거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온통 회색으로 물든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빛깔이었다.

‘뭐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책상 아래 틈에서 빠져온 리본이 불규칙적으로 나풀대고 있었다. 아마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깥바람 때문인 것 같았다.

하필이면 붉은 리본이라니. 그건 마치...

이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렸다.

“빌어먹을! 피해자가 하나 더 있다! 빨리!”

책상 뒤로 뛰어넘은 이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의사들의 유니폼인 흰 재킷을 입은 여자가 책상 뒤에 축 늘어져 있었다. 아마 인질범이 의식을 잃으면서 도움요청을 하려고 그까지 기어간 것 같았다.

이준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선생님! 이봐요! 선생님!"

자욱한 연기 탓에 여자의 호흡이 제대로 붙어있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붉은 리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마치 노란 저고리를 입고 있던 그녀의 붉은 땡기 같았다.

‘미친 새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준은 망설임 없이 제 산소마스크를 그녀를 얼굴에 씌우고 어깨에 들쳐 업었다. 이번에는 구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연희를 향한 부채감이 한데 뒹켜 이준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앞뒤 분간할 겨를 없이 일단 사무실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폐부를 채우는 지독한 연기에도 발은 쉬지 않고 내달렸다.

일층까지 무슨 정신으로 내려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살려야한다는 일념하나로 움직였다.

이윽고 그를 발견한 구급대원들과 팀원들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팀장님! 괜찮습니까? 뭐해! 물 가져와!"

"헉헉... 사람부터 살려!"

무슨 복이 쏟아졌는지, 경찰청장 표창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경찰이 욕먹기 딱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준은 의인 또는 영웅이라 불리기까지 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상현뿐이었다.

"형, 아무리 그래도 산소마스크까지 빼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목숨이 무슨 열개 줄 아세요? 그러다 죽는다고요. 아참! 형이 그때 구해줬던 의사분 지금 행정반에 찾아왔어요. 만나보실 거죠?"

잔소리꾼의 입놀림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다. 이준은 지친다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하나씩만 얘기해. 의사? 그 여율병원 방화?"

"네! 지금 밑에 와계시대요. 애들 말로는 엄청 예쁜..."

이준은 상현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고개를 휙 돌렸다.

인명을 구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건 또 뭔가? 거기다 외과 의사라면 무진장 바쁠 텐데 말이다.

"그냥 가라고 해. 인사는 괜찮다고."

"그럴까요?"

문득, 이준의 머릿속에 그녀의 머리칼에 매달려있던 붉은 리본이 스쳤다. 왠지는 몰라도 그 리본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아릿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준은 내려가려던 상현을 붙잡았다.

"상현아, 1층 휴게실에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해."

상현의 낯빛이 희색으로 뒤집혔다. 나무토막이나 다름없던 이준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형!”

이준은 특공대 로고가 프린팅 된 검정색 기동복 티셔츠로 갈아입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휴게실로 향했다.

이상했다. 뭔가 모르게 뱃속이 빠듯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단순히 여자를 만난다는 들뜸과는 결이 달랐다.

이준은 중간에 걸음을 멈추고 가슴 부근에 손을 대보았다. 무슨 병이라도 도진건지, 심장이 죽는다고 덩실거렸다.

‘뭐지, 이 기분은.’

이준은 머리칼을 털어대며 부산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저 성의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서라며 스스로 다잡기를 몇 번이었다.

문을 열자, 다소곳이 앉아 종이컵을 훌쩍이는 가녀린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긴 머릿결을 하나로 모은 붉은 머리끈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이준은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기척을 냈다.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고개를 돌리는 그녀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희고 둥근 이마. 가지런한 눈썹과 부드럽게 뺨은 눈매. 화중 형님을 닮은 갈색 눈동자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다.

“...”

“...”

그녀도, 이준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백산을 비추던 어느 밤처럼 시공이 모두 멈춰진 듯했다.

이준의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끝-